

ACE 5 :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의 다섯 번째 순서로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의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1 : 23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 :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B.C. 1 세기경에 세계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한 로마제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60년 전부터 유대 지방에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여섯 번째 총독으로 부임해왔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A.D. 26-36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부터 시작하여 3년 반으로 치기 때문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임한 A.D. 26-36년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4년 전에 총독으로 부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 2년 반을 더 있다가 로마로 소환되어 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 하여,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불신자로서 또 정치가로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지만, 빌라도는 이 판결로 인하여, 가롯 유다와 함께,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 저주받은 이름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뚫혀 죽으실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건이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는 사건임을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못뚫는 일에 참가한 사람들이나, 구경군으로 있었던지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그런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리심은 단순한 피흘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을 위해 고난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희롱하며**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 : 42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1. 예수님은 왜 무력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는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세상 권력을 물리칠 수 없었나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는 이런 엄청난 분이 세상의 정치가와 폭도들의 손에 왜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의 원수들은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깊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 :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남을 구원하기 위해선 자기를 버릴 수 밖에 없는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 :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며

고린도전서 1 :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1 : 24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들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떠들며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 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하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기계신 분은 모두 부모들이시니까 저의 말을 잘 이해 하시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걸을 낳았지 속도 나았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또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이 속썩이는 것을 보고, 남의 자식 말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 농사가 어렵습니다.

자식 농사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보다, 십자가 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기독교인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식 농사뿐이 아닌 부부 사이에서, 또 사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네 자신이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깊이 체험하기 원하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을 깊이 깊이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체험하기 원하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을 깊이 깊이 하여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은 정도에 따라 성령의 새사람은 더욱 더욱 많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2 :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전서 1 :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려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저는 이런 실화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밀려오니 압록강까지 북진 해갔던 국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1.4 후퇴입니다. 1.4 후퇴가 있었던

당시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확정을 피하여 남한으로 피난하였습니다.

피난대열을 따라 남하하던 어떤 젊은 여인에게 산고가 다가왔습니다. 모두 다 살기 위해 피난 가던 길에서 아무도 이 여인의 뒷바라지를 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군대에 나갔는지, 납치되어 갔는지 그 내막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아픈 배를 부들켜 안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눈보라와 찬바람이 뽕뽕 부는 밤입니다. 아이는 추워서 울니다. 여인은 아이가 울 때마다 자기 옷을 벗어 아이를 싸주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어 아이가 울 때마다 자꾸 벗어 아이를 싸주었습니다. 다 벗어 아이를 싸주었지만 아이는 울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중에는 벗은 몸으로 갓난 아이를 자신의 가슴 안에 품었습니다.

날이 새었습니다. 남하하는 대열에 짐차를 타고 피난하는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인이 먼저 다리 밑에서 들려 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부부는 함께 다리 밑에 가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갓난 아기를 꼭 껴안고 옷을 거의 벗은 채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추위에 아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옷을 다 벗어 아이를 싸주었기 때문에 여인은 얼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기는 살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전쟁통이니까 대강 시체를 매장하고, 그 선교사 부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데려다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청년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양부모에게 자신의 내력을 물어 봤습니다. 양부모는 추웠던 그 밤의 자세한 내막을 말해 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너를 살리려고 옷을 다 벗어 너를 싸주었기 때문에 너의 어머니는 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말도 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양부모와 함께 어머니가 돌아 가신 곳이라도 보고 싶어 내한하였습니다. 모두가 변하여 그 장소가 어디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었지만 대강 어느 정도라는 것은 기억하고 찾아 갔습니다.

이 청년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그 밤에 얼마나 추우셨느냐’ 고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때 자신은 살겠다고 아이를 던져 버리고 피난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전쟁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다 벗어 아이를 싸주고, 자신은 추위에 얼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물을 삼으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 :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II. 다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증거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1. 먼저 예수님의 고난을 대표하는 어린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대표하는 칭호가 어린양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양, 죽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의미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해방자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모세는 80 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애굽의 왕 앞으로 보내졌습니다.

모세는 애굽왕 바로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출 5:1)**”

애굽왕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 하리라**” 하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게 하시려고, 9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래도 바로가 끝까지 듣지 않자 마지막으로, 애굽의 초태생은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하여 동물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출 11:5-6)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출애굽기 12 : 21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출애굽기 12 : 22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출애굽기 12 : 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가족단위로 어린양을 취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설주에 칠해진 피를 보시면 그 집을 넘어 가시겠다(출애굽기 12:21-23) 고 하십니다.

그 밤에 애굽의 초태생은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하여 동물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음의 사자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출애굽기 12 : 30)고 합니다.

여기에 놀란 바로는 할 수없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속히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까닭입니다. 여기서 어린양의 피는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듯,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린 양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 : 3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출애굽기 12 : 5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모든 사람이 각 가족 단위로 어린양을 취하되, 그 어린양은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라(출 12:2,5)고 하셨습니다.

이 흠없고 점없는 일년 된 어린 수양은, 4 일간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에서 집안에서 함께지냅니다.

4 일간 그 집 식구들의 사랑과 귀여움 속에 있게 됩니다. **4 일째 되는 날 밤에 이 양을 잡습니다(출 12:6).**

출애굽기 12 : 6 이달 십사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출애굽기 12 : 7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출애굽기 12 : 8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집안 사람들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던,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이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죽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받던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외아들을 희생시키는, 깊은 사랑의 아픔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출애굽기 12:7)**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고 지나가실 때에, 어린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어린양이 대신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양의 피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피의 모형입니다. 그 귀한 피가 그 집의 문설주에 칠해져 있는 집은 사망의 심판이 피해 가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의 문설주에 칠해져 있는 사람은 사망의 심판이 피해 가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린양의 고기는 반드시 구워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출애굽기 12 : 8)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2 : 8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므로 우리는 무교병과 쓴나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2.1 무교병의 의미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복음 16:6 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과 함께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사도 바울은 고전 5:7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 : 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에 대해 말하며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으로 직접 희생을 드리셨으므로, 이제는 예전의 양을 잡아 그 피로 드리는 예전의 묵은 누룩은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유대인들은 1500 년 가까이 이 유월절 의식을 지켰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의식이 의미하던 모든 것이 모두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묵은 누룩만 고집하며,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룩없는 떡에 대해 확실히 개념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기 전날 밤의 유월절 만찬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양의 고기와 누룩없는 떡과 쓴나물을 먹던 그 날 밤에 예수님의 만찬도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월절에 먹는 누룩없는 떡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이 만찬 석상에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26 : 26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신 떡이 유월절에 먹는 누룩없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이 누룩없는 떡을 내 몸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없는 떡인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선 누룩없는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 :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 :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 :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누룩없는 떡의 원형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구약의 유월절에 먹는 물질로 된 떡을 먹어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살아 있는 신령한 떡인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2.2 쓴나물의 의미

또 하나님께서는 **어린양의 고기는 반드시 구워먹되,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출애굽기 12 : 8)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쓴나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쓴나물은 마음의 아픔의 상징입니다.**

쓴 나물에는 독생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시는 고난의 아픔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어린양의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박으신 하나님과 어린양의 희생에 내포된 아픔을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먹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교병과 함께 이해하여야 할 쓴나물의 의미입니다.

쓴나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2.2.1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 시에 못 밖히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이 어두움은 오후 3 시가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여섯 시간 동안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상할 수 없는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이 어떠했다고 상상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참혹한 고통에 대하여 경건한 의사인 Dr. Christian F.G. Richter 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몸이 십자가 위에 비정상적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체중으로 인하여 팔뚝이 잡아 늘어져, 조금만 움직여도 큰 고통이 몸 전체로 퍼지고, 특별히 못밖힌 부분과 살의 찢어진 부분에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예민한 손톱과 발톱에 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또 피는 솟구쳐 머리 부분으로 집중되어 심한 두통이 오고, 못밖힌 부분에서 생기는 고통과 몸의 긴장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이 잘 안되어 심한 갈증이 온다고 합니다. 허파에 축적된 피가 심장을 압박하여 정맥이 부어 오르고, 몸 전체에 격한 고통이 계속됩니다. 못밖힌 상처로 피가 계속 흘러 내려 혈액이 부족하게 됨으로 고통은 감소되면서, 근육과 핏줄, 신경이 점점 굳어지고 생명이 끊어집니다.

십자가에 못밖히게 되면 죽음은 단번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비류의 하나로 여김을 받아 이런 참혹하고 비천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동정이나 자비가 포함되지 않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이렇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다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을 때는 몰약과 담즙을 식초에 섞어 줍니다. 이것은 수면제도 되고 마취제도 되기 때문에 고통을 경감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박을때도,

마태복음 27 : 34 쓸개탄 포도주(VINEGAR)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고 하였습니다.

* 포도주 : VINEGAR(K.J.V.)

예수님께서서는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마취제를 마시길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빌라도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길,

갈라디아서 3 :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그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린양의 고기는 반드시 구워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출애굽기 12 : 8)고 하십니다. 벽에 걸어 놓고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씹어 먹으면서 그 쓴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증거중에서 다른 또 중요한 것은

2. 고난받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림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이사야 53 :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 : 3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하신 분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왔건만 아무도 그를 반겨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습니다.

이사야 53 :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 : 5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 :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 : 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 : 8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의 이런 고난이 형벌 받을 자기의 백성을 대신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 없이 혼자서 담당하셨습니다.

III. 다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죄책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린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제외됩니다.

요한복음 5 :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속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는 무궁한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을 한 가지씩 검토해보면,

1 유화(宥和, reconciliation, propitiation)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화(宥和, reconciliation, propitiation)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22-23 에서

골로새서 1 :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reconcil)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 : 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인한 죄사함의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과의 불화로 인한 원수 관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2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할 때 찾아 오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불화할 때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5 :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 : 11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언제 어떤 환경에 있던지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 !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버리신 것입니다.

3 구속(redemption)

다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효력이 있습니다. 구속의 의미는 속전(ransom)을 주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요한복음 19 : 30 --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고 하셨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속담에 조상이 신 포도를 입에 물으니, 자손의 이가 시리다는 말에서 온 것으로, 조상으로부터 내려 오는 죄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tetelestai(complete, discharge (a debt))**로서 값을 다 지불하여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그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지요, 값을 주고 다시 사셨으니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 :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버리신 것입니다.

3.1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구약의 모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준다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속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례가 구약 시대의 근친 구속자(Kinsman Redeemer)가 있습니다.

근친 구속자(Kinsman Redeemer)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빚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렸을 경우, 그 사람의 근족으로서 빚을 대신 지불하고 구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레위기 25:47-49 에 기록되기를,

레위기 25 : 47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빈한하게 됨으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 몸이 팔렸으면

레위기 25 : 48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레위기 25 : 49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8 절에서 속량이라는 말이 구속(redeem)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인에게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하여 빚으로 인해 노예로 팔렸을 경우, 그 팔린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빚을 갚고, 노예에서 다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주(債主)가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근친 구속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구속사업을 구약 시대 때 미리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죄로 인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주(債主)인 죄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어 죄에서 해방되어 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근친 구속자, Kinsman Redeemer 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첫째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redeem 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이런 조건을 갖춘 redeemer 가 나타나면 채주가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친 구속자 Kinsman Redeemer 가 값을 지불하면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됩니다. 채주가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족(Kinsman Redeemer)인 예수님은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의로운 우리에게 소유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 : 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실 일을 모형적으로 보여 줍니다..

4 제사(sacrifice)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사의 효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설정된 이유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멈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인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7:11 에는

레위기 17 : 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없으신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으로 인하여

에베소서 2 : 19 --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직접 속죄제물이 되신 효력은

4.1 영원한 속죄 제사

모세의 율법에 따라 양의 피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임시 방편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속죄를 위한 무궁한 능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 :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4.2 양심을 씻음

구약 시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한 제사법이기에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을 깨끗이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믿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고 합니다

IV.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주는 유익

현대 교회의 병폐가 축복과 성공은 있는데,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영광은 누리고 싶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됩니다. 장성한 신자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24 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합니다.

또 로마서 8:17 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만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 왜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줍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면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향복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타고난 육성이 점점 약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뵈전 4:1-2 에서,

베드로전서 4 : 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전서 4 : 2 그 후로는 (너희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좃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역자 주)고 합니다.

더욱 깊은 신앙적 유익은 빌 3:10-11 에 있습니다. ,

빌립보서 3 :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 3 : 11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 구절은, 바울이 순교를 하면서 까지도-바울은 실제로 참수형(斬首刑)을 받아 순교하였습니다-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깨달아, 어찌하든지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에 이르러 하는데 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예수님을 닮는 인격적 동화가 우리안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동화는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교회의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낸 성도들 간에는 깊은 인격적 신뢰에 의한 동료 의식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와 예수님 간에 깊은 인격적 신뢰가 생기고, 인격적 교류가 깊어져,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동화(assimilation)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과 신뢰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는 이런 동화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고난의 비밀!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영광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3:7-14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으신 주의 함께 고난을 받으므로 고난을 인하여 하나가 됨에 동참합니다

고난은 영광의 전주곡입니다.

그의 죽으심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부활이 그만큼 가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난에 감추어진 비밀은

그것이 영광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